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변에 있는 자그마한 건축물이 더욱 중요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도시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이 책은 절끈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대개 그 도시에 있는 상징적 시설물들을 통해 얻는 인상인데, 사실 이것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삶과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나는 내가 사는 서울의 남산타...

다만 그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잘 인식되지 않지만, 우리의 도시적 삶과 공동체는 그런 공간에서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칼비노는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도시를 만들거나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비움의 공간을 설정하는 것일...

쿠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리아 로칼비노(1923-1985)가 쓴 '보이지 않는 도시들(De Citta Invisibili)'이라는 책이 있다. 1972년에 초간된 이 소설이 바로 여러급 도시에 대한 관념을 크게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마르코폴로가 여행 중에 들렀던 도시들을 쿠빌라이칸에게 묘사하며 들려주는 내용으로 된 이 작은 책은 그 소재의 구성부터 예상치 않았다. 전체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첫째 장과 마지막 장에 각각 열 개의 도시, 나머지 일곱 장에는 각각 다섯 개의 도시를 넣어 전체 스물셋의 도시를 설명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소재목에는 도시, 기억, 욕망, 색인, 이름, 땅, 하늘 같은 단어들을 반복시키면서 숫자들을 거꾸로 붙여, 목록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건축물 몇몇에 있는 게 아니라 "거리의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난간에, 파괴된 안테나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굵고 팔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황제에게 강조하며 설명한다. 도시의 인상을 이야기할 때 거들떠 보지 않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 실은 도시의 가장 큰 진정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 이미지들 환영일 뿐이다. 도시는 건축물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 도시는 의명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회다. 그래서 누구나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의 사명이라면, 그 공간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 건물의 내부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시설일 뿐이며, 도시민이나 방문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이 도시에서 더욱 요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부분이다.

이 더운 여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시를 발견하며 우리 삶을 사유하는 즐거움을 누리실 것이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지역 갈등 조장' 여당 대표가 할 짓인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지명지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 2명을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고 한다. 홍 대표의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북지사 등 충청 출신 2명을 지명지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가 거세 '추후 논의'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 지명지 최고위원은 약세지역인 호남과 충청에 각각 한 명씩을 배려하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홍 대표의 "충청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의 논리로 보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표를 주지 않은 지역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것 아닌가.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특정지역을 소외 차원이 아닌 완전 배척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특히 "호남은 호남발전위원장을 임명해 최고위원회에 참석시키겠다"는 당헌·당규에도 없는 홍 대표의 발언은 호남을 구걸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오죽하면 최고위원 전원이 심각한 지도력 손상을 겪고까지 했을까.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열린 7·4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에서 "한나라당이 아직도 호남에서 야당 대접을 받는 것은 지역정서를 읽지 못했다"며 "광역적인 지역갈등을 없애고 호남 지역의 국책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가 책임은 정치인이라면 최고위원직 호남 배척이 지역정서를 제대로 읽은 것인지, 광역적인 지역갈등을 없애는 방법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홍 대표의 최고위원 호남 배척 시도가 앞으로 정치 행태에 부메랑이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게 여당 대표로서 할 짓은 아닐 것이다.

노사 화합 성숙한 노사문화 기틀되기를

광주지역 노사관계가 '평화 무드'를 타고 있다고 한다. 지역 내 사업장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올 임금교섭을 이미 타결했고, 지난해 시행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도 큰 갈등 없이 정착단계라는 것이다. 이는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노동운동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지역 158개 사업장 가운데 70곳(44.3%)이 임금교섭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결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27.1%에 비해 17.2%포인트 높은 수치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도 김호타이어 단 1곳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타임오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단체협상을 마친 광주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57곳 중 54(93.8%)곳이 타임오프 적용에 합의했다. 이는 전국 평균 92.3%보다 2.4%포인트

트 높다. 상당한 진통이 우려됐던 타임오프가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노사 해빙 무드는 지역 사업장의 노조들이 몰라보게 달라졌거나 빠른 속도로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측도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 신뢰의 바탕이 마련된 데다 과거에 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밑거름이 됐다. 노사 간 반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던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광주지역의 노사 화합 무드가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성·과격'이라는 지역 노사문화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노사화합 무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노사가 상생의 지혜를 터득해 진정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방학을 맞은 가정에서 아이들 방학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서 아버지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는 역할모델로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들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집안의 경제력(부의 정도),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단지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에게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이라는 말은 엄마의 교육역과 불안감을 이용해 먹고 사는 학원가의 사교육업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가정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성공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는 현상은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구 결과로 제시돼 있다.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실패를 견디는 힘이 더욱 컸고, 자신과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문제 해결력이 월등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 D파크'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s)'라고 했다.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만원 출근 버스에서 시달리며 매일 출근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버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된 아버지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희석이다, 동창회, 각종모임과 휴일 골프 등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가끔 보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가끔 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대화와 사랑보다는 교육적 훈도나 감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가끔 관심 갖는 아버지에서 듣는 훈도가 그리 달갑지 않다. 좋은 아버지는 분명히 아이들 양육에 꼭 필요하다. 올 여름방학 자녀에게 공부취투가 높고 성공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는 현상은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구 결과로 제시돼 있다. 아버지가 양

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실패를 견디는 힘이 더욱 컸고, 자신과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문제 해결력이 월등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 D파크'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s)'라고 했다. 허겁지급 아침을 먹고 만원 출근 버스에서 시달리며 매일 출근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버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된 아버지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희석이다, 동창회, 각종모임과 휴일 골프 등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가끔 보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가끔 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대화와 사랑보다는 교육적 훈도나 감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가끔 관심 갖는 아버지에서 듣는 훈도가 그리 달갑지 않다. 좋은 아버지는 분명히 아이들 양육에 꼭 필요하다. 올 여름방학 자녀에게 공부취투가 높고 성공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는 현상은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구 결과로 제시돼 있다. 아버지가 양



다들 교육적 훈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가끔 관심 갖는 아버지에서 듣는 훈도가 그리 달갑지 않다. 좋은 아버지는 분명히 아이들 양육에 꼭 필요하다. 올 여름방학 자녀에게 공부취투가 높고 성공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는 현상은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구 결과로 제시돼 있다. 아버지가 양

의료 칼럼



윤길중

올해 역시 장마가 끝나자마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피서를 계획하며 마음이 들뜨는 시기다. 하지만 강력한 자외선에 가장 취약한 부위인 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에서 가장 소중한 눈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는 물론 눈의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햇빛이 강한 해변이나 모래사장, 골프장, 강가의 물 반사, 하얀 대리석 건물의 반사광 등은 자칫 각막화상을 부른다. 특히 시력교

여름 눈 건강, 조심할 것 많지요

정수술이나 노안교정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여름철에 무엇보다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외선이 강한 피서지 등에서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모자나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써서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렌즈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외선 노출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할 때 감염의 우려가 더 크다. 선글라스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율을 높이고 UV-A, UV-B, UV-C를 차단할 수 있는 코팅렌즈가 필요하다. 가장 적절한 컬러 농도는 75~80%로 녹색 선글라스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해변이나 운전시 적합하다. 자외선 못지않게 눈을 위협하는 것은 과도한 방망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다. 여름철 안과를 찾는 환자 중 10%가량은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방망이 잘되는 곳에서

눈이 뻘뻘해지거나 피로를 느낀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평소 안구 건조 증세가 있는 사람은 에어컨 통풍구가 눈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 눈의 건조함을 막는 게 좋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시간 50분 작업 후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며, 컴퓨터 화면의 높이를 눈보다 10~20cm 아래로 낮춰 눈이 노출되는 면적을 줄인다. 또 렌즈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외선 노출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할 때 감염의 우려가 더 크다. 수영을 할 때는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착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물놀이 후에는 바로 버리는 게 좋다. 렌즈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휴가철은 첨단과학의 힘을 빌려 라식, 라섹 수술이 활발한 시

울 하반기 아시아권 및 국내 최초로 미국 알콘사의 울트라 펄스 레이저 'FS200'과 'EX500' 엑시머 레이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두 레이저는 가장 최첨단 기술로 수술시 환자가 이동할 필요 없이 누워만 있으면 최소 2분 만에 수술을 끝마칠 수 있고 절편생성이 10초 내에 가능하다. 특히 수술 중 환자 이동 없이 레이저 교제 10초, 시력 교정 10~20초 등 대기시간을 포함해도 최소 2분 만에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수술이 어려웠던 고도 근시나 얇은 각막도 간편하게 수술이 가능해 시력교정수술 환자의 시력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력교정 레이저 수술은 다른 어떤 수술보다 수술시간이 짧고 시력회복이 빠른 수술이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따져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며, 수술 경험과 노후가 많은 숙련된 전문의의 수술과 첨단 라식기종의 조화도 중요하다. <남안과2병원 원장>

기고



정병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각 분야에서 섬세하고 감성적인 마인드와 소프트 파워로 무장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사회변화에 걸맞는 제도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필수요소라고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

여자여서 행복한 광주 만듭니다

본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의 참여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공직참여 확대 여건 조성, 성인지 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나 육아휴직제 정착, 성별차와 가정폭력에 방과 피해자 보호, 1년 중 1주일을 여성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민선 5기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있다. 즉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는 물론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민관합동 워크숍, 시민대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여성재단을 설립해 '성평등도시 실현을 통한 여성 삶의 질 향상'을 경영목표로 여성정책개발, 여성역량강화, 여성네트워크강화, 성평등 증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시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획득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교육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 돌보기 시범사업(만 8세 이하)을 시행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성화와 함께 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역시 최초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아동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여성기업 제품구매 확대와 인산부 등 유아동반 입산부담완주자점의 공공기관 확대 설치, 여성전용화장실 신축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되어 여성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광주시 여성정책담당>

선거 많은 사회, 합리적 기준 가지고 자질 따져야

우리 생활 주변에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부터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회장 선거까지 각종 선거가 많다.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은 공약을 제시하고, 책임자임을 호소한다. 하지만, 말만 듣고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 정말, 자질이 있는지 공약을 따져보자. 첫째,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단순히 구호만 퍼붓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건지, 아

니면, 임기 중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있는지,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현행 법규나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본다. 둘째, 지역소망성을 담고 있는지 본다.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염원이나 소망이 담긴 공약인지, 일부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가 공감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인지 따져본다. 셋째, 미래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본다. 당장에 보기에겐 그럴 듯 하지만 세월이 지

나서 홀몰로 전락하는 일회적 소모적 방법인지, 임기 중에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방법인지 평가한다. 이제까지 기준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가 되면, 후보자들도 보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서로 경쟁할 때, 우리 사회는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성호·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Includes details for headquarters, branches, and advertising rates.